

■ 상록탑 숫자 너머 삶 들여다보기



이지선 인물팀 취재부장

“세희님, 타대 경영학과 학생 수답변 왔나요?” 지난주 경영대 수강신청 기사를 준비하며 우리는 수치와의 싸움을 했던 것 같다. 결국 여러 이유로 기사에 실지는 못했지만 통계를 사용하려고 애썼던 이유는 통계만큼 독자들에게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단 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간지 기사들도, 여러 기업 및 기관들도 우리와 같은 이유로 통계를 사용한다. ‘국내 사망자 수 1612명, 청년 실업률 9.5%,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1.0%’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수치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본래 사용되는 의도와 다르게 난 이러한 숫자에 둔감해져 갔다. 증가와 감소 정도만 확인했을 뿐,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환자들이 ‘1년’ 동안 가족들을 못 만났다는 기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이라는 수치에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나는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직접 마주했다. 며칠 전 아버지 휴대폰 검색 기록에 ‘저체온증 사망’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이야기다. 왜 이런 걸 검색했냐고 아버지께 묻자,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날 아버지는 저녁을 드시며 큰아버지와 통화했다. 아버지는 통화에서 “형이랑 엄마는 그래도 지난주에 아빠랑 통화해서 다행이다”며 “나는 아빠 근래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앞에서 들으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다신 상태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

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또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셔 곁을 지킬 것인지 고민했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장소를 옮기는 중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병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그때서야 ‘1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실감했다.

그렇게 난 직접 아픔을 겪고 나서야 내가 보는 숫자 안에 여러 사람들의 삶이 존재했음을 인지했다. 동시에 감염차단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게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한 정부가 숫자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지 못했던, 그저 숫자에 둔감해지던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물론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규모 감염 사건들 중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 중 대부분이 고령환자인 요양병원의 특성상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요양 시설 환자와 가족이 면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9개월간 가족을 못 만난 환자의 어휘가 약 20단어로 줄어든 사례, 만성 고독이 조기 사망률을 약 2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면회 제한을 완화한 미네소타주와 뉴욕주 상원의원의 노력을 전했다. 이렇게 그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코로나 감염자 수 안에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삶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태도의 차이는 비단 요양병원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치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내린 방역 조치들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감염자 수 추세에 따라 단순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까지도 한계라고 토로한다.

결국 정부는 숫자 안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반성하고 끝낼 수 있지만, 정부의 그 태도에는 국민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 금주의 책



“금주의 책” 무자비한 알고리즘: 왜 인공지능에도 윤리가 필요할까? /

카타리나 츠바이크 지음 / 니케복스 / 2021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인간들을 대신해 수많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기계가 인간에 대해 인간보다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의문을 품고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이 기계가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은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치중립적이고 정확하다고 맹신하는 알고리즘이 오류와 편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알고리즘에 기반한 중대 의사결정 시스템에 인간의 윤리학적 고려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인간이 설계하기에 그것의 쓰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006.3.292a(한)

■ from 편집국 어둠을 들여다보는 학보가 되겠습니다



김해인 편집부국장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 봄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두꺼운 패딩은 이제 벽장 속에 넣어놓고 가벼운 봄옷들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개강도 찾아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개강 첫 주를 잘 보내셨나요. 몰아치는 사이버캠퍼스 알림들과 함께 정

■ 여론광장 혐오를 걷어내고 애정을 가지기

김유정 철학·19

“알면 사랑한다”는 말을 신입생 첫 학기에 체재한 교수님 강의에서 처음 들었다. 그때는 큰 울림을 받지 못했다. 종강일에 교수님께서 그 말을 종이에 적어 사인과 함께 주셨다. 서랍 맨 밑 칸에 보관해뒀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구절이 내 인간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왔음을 깨닫는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지낸다면 그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대를 모르면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때 혐오에 기반한 폭력은 쉬워진다.

슬프게도 세상에는 혐오를 당하는 정말 많은 대상이 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종종 혐오를 목격할 수 있다. 나는 쿼어, 기독교, 여성을 통해 혐오를 인식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뉴스 댓글을 처음 봤을 때, ‘여성인 나’의 기본은 멍석말이를 당한 심정이었다. 사람을 멍석에 말아 못 매질할 하면, 패는 사람들은 멍석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 때문에 죄책감 없이 상대를 때릴 수 있다.

신없이 지내시지는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개강을 하니 한산했던 캠퍼스에도 사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씨씨 계곡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 나누는 학생들을 보니 복잡했던 예전 캠퍼스의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유동인구가 조금 늘어난 탓인지 가판대에 놓인 이대학보가 빠르게 없어지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자분들이 학보를 꼼꼼히 훑어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들쭉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대학보는 벌써 3번째 발행을 맞았습니다. 11번의 발행 중 3번이 지나갔으니 4분의 1이 넘게 지나간 것이죠. 처음 앉은 자리에 우왕좌왕,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적응이라는 핑계 하에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남은 발행도 손살같이 지나가겠죠. 활기차진 캠퍼스의 정취에 설렘만을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던 풍경도 한 번 더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쉬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더 열심히 돌아다니며 세상을 살펴야 하겠지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는 빠르게 오고 갑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신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역할은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캠퍼스 안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학보를 두드려 주세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만나 뵈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다양한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대학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혐오를 분노로 표출하는 것은 상대를 멍석말이하는 것과 같다. 똑바로 보지 않고 그저 내리치기만 하면 된다.

혐오라는 감정을 내가 직접 느껴보기도 했다. 종교와 엮인 문제로 누군가에게 편견과 미움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강요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 내 안에서 기독교 집단에 대한 비틀린 이미지가 자리잡았다. 어그린진 내 관점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을 무작정 꺼렸다.

하지만 혐오의 감정은 곱씹을수록 쓴 독초와 같아서 담고 있는 내가 더 아렸다. 본교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을 접한 것은 내게 전환점이 됐다. 해당 학과 교수님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어 기독교를 공부해본 뒤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슬람, 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됐다. 이 역시 이화에서 얻을 수 많은 것 중 하나다.

쿼어에 관해서는 여러 입장을 겪었다. 쿼어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관용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쿼어를 받아들였다. 시혜적이고 바보 같았다. 가까이 있는 쿼어 지인들을 알게 된 후에는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의

사정임을 인식했다. 내 무례한 시선을 깨치고 새로이 세상을 보는 계기가 됐다.

혐오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알아갈 기회’다. 여성 혐오 댓글을 맞닥뜨림으로써 여성학 담론에 관해 진지하게 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본교 기독교학과 수업을 접함으로써 편협했던 미움의 감정이 허물어졌다. 우연히 그리고 당연하게 인생에서 맞이하게 된 쿼어 지인들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넓어졌다.

대학을 다니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쌓이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는 법을 배우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기반한다. 철학이 지혜, 결국 앎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다. 철학에서 앎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던 백지 같은 마음에 편협함이 깃들었다가 그 협소함이 나뭇대마모되기까지 2년이다. 마음을 예리하게 버리지 않으면 편협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는다. 여전히 이화 안에서 내 시각은 변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 Z의 시선 거북이는 패배자가 아니다

김아진 경영·19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위해 3년 동안 달린다. 아니,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라는 마라톤을 위해 준비하니 장장 12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라톤을 하다가 지쳐서 잠시 쉬려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공부해야지 이런 짓을 할 때니?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그때 해” 대학을 가면 실 시간이 많으니 쉬지 말라는 말을 잘짜같이 믿고 대학에 오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강한 충격이 온다.

대학생의 로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을 갈 방학에 토익, 토플 학원에 다녀야 한다. 학기 중에는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와 다를없이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취직을 위해 대외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를 위한 스펙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하면서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많아야 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을 하기 위해 휴학을 내는 것을 남들보다 한참 뒤쳐지는 일로 치부하며, 휴학하면 패배자라는 인식이 있는 어른들도 있다. 쉬지 않고 달려야 남들보다 빠르게나 비슷한 속도로 달려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것이다. 쉬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

사회와 주변의 압박에 의한 레이스는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나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쉼 타이밍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멈추고 거북이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 또한 한동안 그렇게 앞만 바라보고 달렸다.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했고,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앞에서 패배자가 되어 손가락질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렸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달렸다. 휴학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했다. 오직 내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만 했다.

그러나 결국 긴장거리 레이스의 승자는 상대방을 의식하며 급하게 뛰어간 토끼가 아니라 천천히 간 거북이었다. 끊임없이 거북이를 의식하며 앞만 바라보고 달린 토끼는 방심했고 장거리 레이스에서 패하고 말았다.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추며 레이스를 즐긴 거북이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쉬어간다 해서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즐기며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하다 보면 거북이처럼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부터 나를 재촉하게 만드는 것들을 집어던지고 스스로 이렇게 외치며 인생의 속도를 좀 줄여볼 예정이다. 거북이는 패배자가 아니다.